

2026년 7월 3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고용 둔화와 연준 긴축 우려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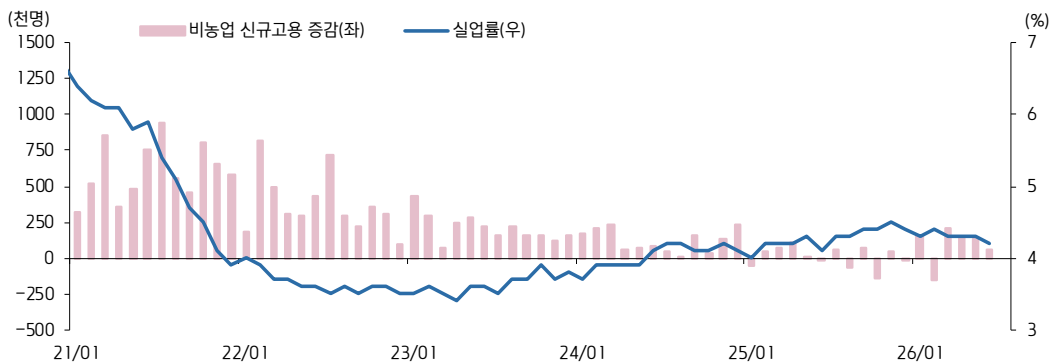
미국 6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5만 7천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11만 5천명)를 크게 하회했다. 또한 4~5 월 고용도 합산 7 만 4 천명 하향 조정되면서 최근 이어졌던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수정치 기준 3월 21만 4천명, 4월 14만 8천명, 5월 12만 9천명의 고용 증가가 이어지며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지만, 6 월에는 이러한 흐름이 일부 약화됐다.

업종별로는 전문·사업서비스(+3 만 6 천명)와 교육·의료서비스(+6 만 9 천명)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반면, 여가·접객업은 6 만 1 천명 감소하며 전체 고용 둔화를 이끌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 및 서비스 수요 확대로 여가·접객업의 고용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기대와 상반됐다.

다만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61.8%에서 61.5%로 하락한 영향으로 4.2%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4.3%)를 소폭 하회했다. 시간당 평균임금도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해 임금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된 모습은 아니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노동시장 수요 둔화를 확인하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를 일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시장 예상에 부합한 만큼, 7 월 중순 발표될 6 월 소비자물가까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가 크게 높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고용보고서는 추가 긴축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을 일단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 비농가 신규 고용과 실업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